

테마칼럼

공간과 생활

문학의 향기

디자인 세상

파라다 평평

의병보다 의무병이 필요해



이기호

‘촛불 장난을 오래하면 불에 덴다’라는,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던 의화상식을 일깨워 주셨다.

최고의 문제 때문에 어수선한 정국에 잊지도 않고 또 그 분께서 오셨다. 그 분께선 ‘촛불 장난을 오래하면 불에 덴다’라는,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던 의화상식을 일깨워 주셨다. 또한 ‘의병이란 내란에 처해 있을 때 일어나는 법’이라는 예언도 함께 내려주셨다. 정말이지, 위로는 천천이요, 아래로는 지리를 다 깨우친 듯한 그 분의 말씀 때문에 아아, 같은 작가 입장으로서, 솔직히 ‘쑥’ 팔려서 살 수가 없다. 그건 보수나 진보 같은 정치적 견해 탓이 아니다. 나에겐 그것이 단순한 상업적 제스처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간과하니, 잊지도 않고 계속 그 분이 오시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분께서 대 사회적 발언을 하고,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설 때마다, 우연인지 모르나 항상 그 분의 신작소설이 나왔다. 홍위병 발언을 했을 때나, 햇볕정책과 386에 대한 가혹한 비판을 했을 때나 그랬다(물론,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한때 이번엔 무려 10권짜리 소설이다. 그래서 큰 일이다. 그 분의 발언은 아마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

그 분께선 늘 문학담당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책과는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했고, 그 말들이 당신의 소설보다 한 발 먼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소설 또한 어쩔 수 없이 상품이라는

의피를 씌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된 작가의 소설이 더 많이 팔리는 것은 자명한 일. 그 분의 소설은 논란과 더불어 언제나 베스트셀러 서가 쪽에 위치해 있었다.

사실, 그 분의 소설은 80년대와 90년대 초반, 낙양의 지가를 울리며 많은 사람들의 손과 입에 오르내렸다. 그만큼 당시 그 분의 소설은, 지금 다시 읽어봐도 미적 완성도가 높고, 인간 내면과 본질에 대한 웅숭깊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 분이 어서 빨리 신작소설을 내길 기다리던 독자들이 부지기수였고, 많은 비평가들도 저명한 문학상으로 그 분의 문학적 사기를 북돋워주었다. 그러나, 그때 그 분께선 대 사회적 발언은 하지 않으셨다. 그냥 잠정적, 소설만 쓰셨다. 할 말은 모두 소설에서 했기 때문이다.

어느 작가가 각자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또 그것을 자신의 소설 세계를 통해 독자 제위에게 질문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그 세계가 보수이든 진보이든, 좌든 우든 우리는 결코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 그것이 온전히 독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누구도 우리에게 소설을 읽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소설이란, 본질적으로 해답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장르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해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소설이 가진 윤리이다.

그러나, 그 선택을 교란시키고, 오로지 그 선택만을 위해 취하는 제스처들(그 분의 말씀은 늘 과격적인 몇 문장에만 집중된다. 그것은 분명 논리가 아니다), 보기에 민망하다.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때, 소설 속에서 작가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질문을 온전히 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자신의 소설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작가의 변명은 길어지고, 뜻은 구차해진다. 안타깝게도 그 분이 이번 에 낸 소설은 ‘초한지’이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창작이 아니다. 그것은 번역일 뿐이다. 할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그분께선 아무 말도 안하고, 그 분이 ‘금시조’란 소설을 읽고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던 날들이 있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석담 선생이 일갈한 것처럼, 예술을 대하는 내 뜻이 너무 알고 전해 보여, 좌절하고 아파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음이 아프다. 내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을 던진 작가가 자꾸 일방적인 해답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분께나 나에겐나 지금은 의병이 아닌, 의무병이 필요한 시기이다.

(소설가·광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초고유가시대 외면하는 지자체 관용차

광주·전남 지자체의 고유가 ‘불감증’이 심각하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국가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데도 지역 지자체는 여전히 대형 관용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의 관용차 가운데 경차 및 소형차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38%를 크게 밑돌뿐 아니라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대형차 비율은 15%로 전국 평균 9%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남도 관용차의 경·소형차 비중은 겨우 1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전남지역 22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소형차 비율은 29%로 전국 평균 46%에 비해 크게 낮다.

광주·전남 지자체의 고유가 불감증은 에너지 절약형 관용차 구매행태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광주시의 경우 연료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3대에 불과하고 전남도는 단 1대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늘리고 있는 타 시·도와 대조적이다.

국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초고유가 속에 한 단방울의 기름도 아끼기 위해 대리차를 줄라매고 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가 하면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생계 수단인 돌봄 아니라 전곡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대형차 비율은 15%로 전국 평균 9%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형 관용차를 굴리는 지자체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자신들은 중·대형차를 타고다니면서 지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지자체는 당장 관용차부터 에너지 절약형이나 경·소형차로 바꿔야 할 것이다.

정부 경제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통해 경제정책의 기초를 다져 수정했다. 성장에 대한 미련을 접고 물가와 민생 안정에 전력기로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시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장에서 안정으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 내외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35만개에서 20만개 수준으로 축소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로 높였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늘렸다. ‘7·4·7’로 압축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국내의 경제여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유가는 어제 배럴당 144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 때 1,600선 아래로 무너졌고 투자 및 소비심리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물가부터 잡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가 성장해도 물가가 치솟으면 국민의 생활은 나아질 수 없다. 물가상승률이 성장률을 앞지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특히 지방과 서민들에게 집중된다.

문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정부는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데도 고(高)환율 정책을 유지,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시혜적으 정책을 펼쳤다. 경제장관들이 경제가 악화될수록 주요 원인을 해외 여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탓으로 돌리는 것도 뜻밖의 모습은 아니다.

정부는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난 국채를 극대화하면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고통을 나누기 어렵다. 상황은 결코 간단치 않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無等鼓

용병(傭兵·mercenary)의 역사는 매우 길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때부터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로 외국에서 군인들을 증원하면서 용병이 생겨났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로마제국 말기의 게르만 용병군을 필두로 중국 송대(宋代)의 용병부대, 중세 말기 이탈리아 등의 유럽 신흥도시나 절대군주가 고용한 용병 등이 대표적이다. 용병들에게 소속감은 별로 중요치 않다. 돈에 의해 고용되는 용병들은 급료나 계약조건에 따라 야근이나 작군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소속을 바꾼다.

현대판 용병은 프로 스포츠계로 살아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에서도 거액의 연봉을 받고 뛰는 용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월 프로야구 KIA가 용병 투수 호세 리마를 퇴출시켰다. 올 시즌 초반 허더리도 KIA는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리마와, 앞서 내보낸 윌슨 발데스(유격수)를 보강해 4강까지 넘보겠다는 청사

진을 밝혔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통산 89승으로 지난 1998년 국내 프로야구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국 무대를 밟았던 투수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는 리마는 겨우 3승 6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KIA에서 떠났다. 불안한 수비에 타격까지 부진했던 발데스는 이미 5월에 퇴출당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결과적으로 모두 덜 떨어진 용병이었던 셈이다.

반면 한화의 덕 클락, 우리 클리프 브룸바, 롯데 카림 가르시아 등 외국인 타자들은 나름대로 제 몫을 다해주고 있는 용병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 스포츠에서 용병영입의 성패는 결국 사람 고르기에 달렸다. 사전에 치밀하게 점검하고 현지에서 제대로 적응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하게 따져 선택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요점은 스포츠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치영 체육·여론매체부장unipark@

용병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정용준



현대인은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속에서 과다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부신피질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중 포도당농도를 높인다.

이렇게 우리 몸은 전투상황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부교감신경이 약해져 소화기관의 운동을 떨어뜨려 음식물이 위장관을 통과하는 시간이 느려진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몸에서 매순간 일어나고 있다

독일 예나대학의 솔츠박사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감신경계우위의 긴장상태가 질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자기최면을 이용한 이완법을 개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독일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자율훈련법이라고 하는데 편안한 장소에서 자기암시(오른팔이 무겁다, 따뜻하다, 심장이 고요하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 아랫배가 따뜻하다, 이마가 시원하다)를 통해 자신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방법이다.

요즘 유행하는 웃음치료를 긴장되어 있고 불안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풀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자기암시, 자기최

기고

김한호



연일 계속되는 촛불 시위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시작된 청소년 촛불 문화제가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봉화처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급기야는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일과판파로 번지고 있다.

국가 운영의 시행착오는 국력의 낭비다. 건국 60년인 올해,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오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매일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군중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자,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을 세신하

청소년들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불만이 많다. 그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영어 몰입교육 등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니 그들은 언제라도 촛불을 다시 켤지도 모른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확고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

청소년 문화와 촛불 집회

기 위해 청와대 수석과 장관 등 참모진을 개편하고, 대운하 사업 등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 댓글’의 여론에 의해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인터넷 특성상 익명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댓글은 비방과 욕설, 유언비어, 불확실한 정보 등 왜곡된 여론이 전파될 우려가 많다. 특히 댓글은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리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 여론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은 국가의 미래를 예견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성세대가 이끌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촛불 집회에서 청소년들이 외친 ‘밥 좀 먹고, 잠 좀 자자’라는 하소연만큼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인인 평등화·획일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촛불 시위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국가의 혼란은 경제의 위기다. 앞으로 정부는 더 이상 밀어붙이기식의 경제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2만 불 성장 식염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댓글은 비방과 욕설, 유언비어, 불확실한 정보 등 왜곡된 여론이 전파될 우려가 많다. 특히 댓글은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하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처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신과 갈등을 타오르는 촛불처럼 분출할 수 있는 국민 대동한마당을 펼쳐야 한다.

(광주문인협회 부회장·문학박사)

신용카드 결제 거부 고시원 강력 단속해야

동생이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형으로써 가끔 고시원 비용을 지불할 때가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있다보니 고시원도 덩달아 붐빈다.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고시원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기로 유명하다. 그렇다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해주지 않는다.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상대하다보니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나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조차 “카드로 하면 잠기합인이 안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으니 대신 간이영수증

을 써주겠다”는 등 황당한 대답을 하는 곳이 많다. 고시원의 특성상 오랜 기간 묵은 사람들이 많은데 장기 합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또 고시원 뿐만 아니라 식당과 독서실·서점 등도 답합이라고 한 비용을 현금으로만 받는 곳이 많다.

요즘은 환권이라도 아쉽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받고 싶은 게 불합기에 사는 서민들의 마음이다. 고시원도 이제는 신용카드를 양성화해야 한다. ▲이재령·광주시 북구 생동동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주차전쟁 부른다

바로 잡아야 할 불법·무질서가 한 둘이 아니다. 대표적 사례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이다. 당초 건물 준공검사 때는 부설 주차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주차장 역할을 폐쇄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물주들이 주차장으로 준공 검사를 받은 이 땅에 가건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각종 물품을 쌓아놓는 아저씨 또는 물품 보관창고로 쓰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곳은 매일 밤 파라솔과 의자 탁자를 내놓고 술집, 호프집으로 운영한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광주의 도심지 주차

장과 상가 등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불법 주차장도 양산된다.

그럼에도 건물주차장 용도변경은 근절되지 않고 고질병이 돼 버렸다. 이렇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준법익이 결여된 건물주의 부도덕한 양심이 자리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철뿔을 가지지 않는 행정당국의 잘못도 적지 않다.

건물에 달린 부설 주차장의 그 기능 회복에 행정당국은 물론 건물주의 양심적 노력을 촉구한다. ▲강성구·광주시 동구 운림동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